

서 평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애도하며 춤추기

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 여성연구소(글), 판도라 사진 모임(사진),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 용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사진과 이야기』
(서울: 봄날의 박씨, 2016)

신진영*

낯설지 않다. 사라진 골목들에 대한 기록이자 애도로 만들어진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안의 풍경들은 마치 만져질 듯한 질감으로 다가온다. 그 골목 어딘가에 서있게 만드는 사진들은 내 과거로부터 달려 나온 어떤 공간처럼 익숙하다. 스쳐 지나가는 행인 1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받은 방문자로 나는 2002년 성매매집결지라는 공간과 만났다. 대구 ‘자갈마당’이 그곳이다. ‘자갈마당’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자갈마당’도 용산 성매매집결지처럼 삭제되고 지워질 상황에 놓여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삶이 이어져왔던 공간은 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와 지리적 맥락 속에 자리한다. 자갈마당은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삶을 통과해 여기, 지금을 만들어왔다. 용산도 그러한 맥락을 자갈마당과 공유하고 있다. ‘성매매’라는 한국사회 공통분모의 현장을 품고 있는 곳, 난도질당한 시대의 아픔을 살아낸 곳이다.

자갈마당은 1906년 공창으로서 유곽 설치가 결정된 후 1909년 최초 영업을 시작했다. 해방이후 공창제는 폐지되었지만 한국전쟁기간 연합군 위안소로, 그리고 1960년대부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던 시기까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박사과정/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wouju3388@hanmail.net)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 하에 존재해왔다(신진영, 2016). 성매매집결지는 일본과 미군정, 한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 시기마다 시대적 필요를 명분으로 체계적인 국가 관리 체계 하에 있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를 표방하며 성매매 여성들은 성 도덕적 낙인을 통해 배제와 격리 방식으로 관리하고 다른 한편 성매매를 하는 공식적 공간으로서 자갈마당을 승인해온 것이다. 일제강점기 현진건의 소설 〈고향〉에 등장하는 대구의 유곽은 가난한 부모가 20원에 딸을 팔아야 했던 곳이었다(현진건, 2016). 그 시기 유곽에서의 삶을 비판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비극은 자신들의 조국이 해방된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2000년 초반까지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기사는 계속 등장했고, 그 와중에도 지역의 책임자들은 자갈마당을 국제적인 섹스타운으로 만들어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을 스스로없이 내놓았다. 그것이 100년 된 유곽의 건물들이 그 외양을 마음껏 화려하고 당당하게 확장한 배경이 되었다.

2004년 성매매 문제의 본질은 여성인권 침해에 있다는 취지의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고 당시 이 법을 주도했던 여성운동 활동가들은 이 법이 ‘인권’이라는 당위로 움직일 것을 기대하며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정리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폐쇄되거나 위축된 성매매 집결지는 개발이나 지역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폭력적으로 밀려났다. 그 와중에 성매매 여성들의 삶은 삭제되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지고 있던 알선업자들은 환호했다. 물론 이 사이 성매매 집결지라는 경제구조에서 생존해온 중간 상인, 소개업자, 호객꾼들도 거친 항의를 이어갔으나 자본의 논리는 이 모두를 뛰어넘어 진행됐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지역적 이익이 기대되지 않는 곳의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준비되지 않은 채로 100년을 넘게 그 공간에 담기고 그 공간을 넘어섰던 여성들의 삶이

‘삭제’되기 전에, 기억의 장소로서 ‘자갈마당’을 기록해야 한다. 기억은 좋고 나쁘거나를 떠나서 선악 판단 이전에 존재의 거처이다. 비극이든 희극이든 존재의 거처를 담는 기억의 장소, 그 공간을 기록한다는 건, 치열했던 삶을 부정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끈을 갖는 행위이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려볼 수 있고 현재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생존 때문에 여전히 자갈마당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자갈마당의 선불금과 다양한 폭력들에 대항하기 위해 만나는 여성들, 많은 자갈마당을 경험한 여성들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이야기들을 이제 기억과 기록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 와중에 마치 계시처럼, 나침반처럼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를 받았다.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 여성연구소〉가 있었기에 용산 성매매집결지와 여성들은 이웃처럼 숨소리마저 들릴듯하다. 이토록 집요하게 한 장소와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만큼 그들은 다양한 작업으로 ‘용산’과 그 공간의 삶들을 보여주었다. 책 안의 ‘판도라 사진 모임 연대기’(15쪽)는 그 과정의 촘촘히 쌓인 실천의 밀도를 느끼게 해준다. 이 연대기가 판도라의 사진작가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판도라의 사진으로 들어가는 몇 가지 경로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의 작가들과 용감한 여성 연구소의 면면을 소개받고 나면 그 곳을 들어가는 몇 가지 경로가 열린다. 활동가로, 연구자로, 큰언니로 이곳을 들어선 이들은 입장만큼 다른 풍경을 만난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설렘으로 집결지 골목 앞에 섰던 기억’(47쪽)으로 시작하는 활동가는 일의 공간이면선 동시에 거주 공간이었던 ‘방’들과 용

산의 언니들과 ‘친근하고 만만했’던 업주와 ‘삼촌’들이 맺는 위계의 사다리를 시간의 풍경 안에 담담히 풀어낸다. 성노동자의 날 잔치에서 오히려 “집결지의 이 거리, 이 골목에서의 언니들의 그 오랜 일과 삶이 참 녹록치 않은 것이었겠다”(61쪽)는 짐작은 큰언니의 “어쩌면 용산 성매매집결지의 이웃으로 살아온 25년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저녁마다 잠잘 수가 없었다”(89쪽)는 깊은 한숨과도 같은 고백으로 이어진다.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는 이렇게 용산 성매매집결지로 들어선 이들이 2009년 1월 ‘용산 참사’ 직후 시작한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의 기록이다. 용산 성매매집결지에서 30여 년간 활동해온 <막달레나 공동체>와 <용감한 여성연구소>가 이곳에서 20-30년 동안 일하면서 살아온 오류십 대의 중장년 여성들과 함께한 이 프로젝트는 공간에 대한 일종의 애도식이기도 하다. 사진을 직접 찍은 ‘언니’들을 소개하고 나면 이야기는 ‘용산역 앞 성매매 집결지로 들어가는 몇 가지 경로’를 보여주는 1부에서 ‘이미지 읽기’를 위한 4부까지 이어진다. 2부 ‘판도라 상자 속 사진들’에 이어 3부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한다.

사진 속에서 같은 공간 다른 색깔을 펼쳐놓던 용산은 2009년 1월, 민자 개발에 따른 이 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위 ‘용산 참사’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니들의 사진 속에 참사현장과 경찰차의 모습이 담긴다. 부서져가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아프고 서늘하다. 모든 것들의 사라져가는 뒷모습에 담기는 향수나 추억으로 수렴되지 않는 용산의 시간들이 가진 무게가 더 불편해야한다고 쉽게 책장을 넘기지 못하게 만든다.

말과 감정을 대신하는 도구, 카메라를 쥐고

말과 감정을 대신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 카메라를 든 언니들은 “내 손, 내 발, 내 얼굴”(118쪽)을 찍고, “인생의 열정과 상처들”(128쪽)을 나누었다. 그리고 “용산 토박이 ‘섹스워커’에서 다른 삶으로”(142쪽) 떠났다. 이들이 기록한 것은 살았던 장소이다. 장소는 고정되거나 화석화된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고 변화하는 삶의 일부이다. 장소를 본질주의적 개념으로 읽고, 장소감을 기억, 균형, 향수와 결부시키는 이들은 장소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과거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유혹이거나, 생동(Becoming)을 구축하는 대신 존재(Being)가 주는 위로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내포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 어떠한 연유로 간직하게 된 내부적 특징에 근거하여 불변의 진리로 간주되는 그러한 장소의 고유성이란 없다”(매시, 2015: 223).

용산 성매매집결지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공간이 점유한 시간을 용인하고 그 공간의 영속성을 추인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성들이 찍은 사진의 기록은 불편한 진실의 속내를 담담하게 발화하고 있다. 그동안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기억을 추억으로 향수로 전유한 이들은 그 공간에 거주했던 이들이 아닌 여성들 몸의 사용을 위해 방문한 구매자들의 것이었다. 이들에게 늙은 창녀의 노래는 늘 감각적 향수를 자극하는 상징물이었고, 성매매집결지라는 장소는 남성성 향유의 결정체였다. 그곳에서 “한 달에도 몇 번씩 죽어버릴 거라고 약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로 나의 깊은 잠을 깨워놓던 지현이, 도루코 면도날로 살짝 그어댄 그녀의 손목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묶어준 후 서랍을 뒤져 있는 면도날을 챙겨서 오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103쪽)던 ‘나’에게 그 장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103쪽). “독장사를 하며 ‘섹스워커’라는 용어에선 당당함과 큰

위안을 얻었던, ‘갈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용어라 생각했’던 여성은 “스스로 성판매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획기적인 변화’로 의미화”(149쪽)한다. 나의 결정이라는 것의 맥락은 얼마나 복잡한가. 어떤 삶을 위한 정체성을 선택하고 어떤 장소에 머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결정지어진 장소의 맥락이란 참으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무수한 고리의 한 지점이다. “지리적인 특수성과 사람들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와 상징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시대에 정치적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 같은 일들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투쟁이 전개될 수 있는지 또는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매시, 2015: 215).

준비 없이 시작한 데다 방 보증금 등 빚으로 힘들어지자 은하의 환각 약 물을 복용하고 영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환각 상태에서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하던 염산을 들이마시고 자살을 했고, 은하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후 영미라는 여성이 다시 또 환각 상태에서 시너를 몸에 뿌리고 자살을 했다. … 장례식장의 남자직원들이 나와서 관을 들어주며 ‘이렇게 자주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단골은 안 하셔도 돼요’(94쪽).

나에게 각인된 이 책안의 에피소드 한 가지는 업주들이 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용산 성매매집결지 여성에게 했다는 제안이었다. 업주들은 암에 걸린 여성에게 분신을 하면 다른 철거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여성의 목숨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장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매매집결지는 무수한 여성들의 죽음이 기록된 곳이다. 스스로 비판해서, 또는 성매매 일에 대한 회피로, 성매매라는 일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약물 등 여러 중독 증상으로 손쉽게 죽음은 일상이 되곤 한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이 책의 3부는 용산을 떠난 여성들의 이후 삶의 모습과 세계 각지에서 전시회가 열린 사연을 알려준다. “성노동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이 다른 범죄나 폭력의 형태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아주 협소”(193쪽)했다는 쉹 실링(CHENG Sealing)은 미국 웨슬리대학에 전시를 준비하며 생긴 소란을 말한다. 성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성매매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항의를 받고, 이 전시를 한국으로 되가져 간다면 그 불안은 더 커졌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성노동자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꿈”(197쪽)이라는 그녀의 말은 매우 다중적 의미로 읽힌다. ‘성노동자’라는 말은 매우 논쟁적이고 또 그 말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매우 다른 정치적 전략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위협한 시도처럼 보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감상적 위안처럼 들릴 수도 있을 ‘장소’에 대한 ‘애도’에 나는 적극적인 가담자가 되고 싶다. 일단은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무엇이든 입장의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억되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선악의 구도를 벗어나 존재한 모든 것들의 역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를 구성한다. 현재를 모르고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기록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라져야 할 현재이자, 미래의 부분으로서 주장될 때조차 그러하다.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폐쇄라는 이름으로 지우려할 때의 폭력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그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공간에 대한 지지나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그 공간에서 성매매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성매매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떤 수용과 저항으로 행위성

을 담보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폭력적 공간이 누구의 요구로 존재해 왔는지를 알아야한다.

판도라의 상자는 감추고 싶거나 지우고 싶은 모든 걸 다 끄집어낸다. 낭만적 포장도 비장한 눈물도 없이 그저 보여준다. 그녀들의 눈이 가닿은 삶이 불빛이 되기도 하고 길바닥의 소슬한 자갈들이 되기도 하며 일상의 낮빛이 사진에 담긴다. 그리고 느낌도 판단도 내려놓고 일단은 여기 사진 속에 살아보라고 청한다. 그 안에서 눈물이 나건 울분이 생기건 그건 온전히 동행한 이들의 몫이다. 나는 판도라의 사진들을 보며 용산 성매매집결지 부서진 장소를 사라진 삶들을 애도하며 미래를 위해 고정되지 않은 내 꿈을 춤출 것이다. 용산을 떠난 여성들의 남겨진 시간들이 계속되듯이 그렇게 삶을 위한 춤추기는 끝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 매시, 도린(2015),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Massy, D.(1994), *Space, Place,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 신진영(2016), “성매매 집결지의 장소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 ‘자갈마당’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현진건(2016), “고향”, 『조선의 얼굴』, 서울: 42미디어콘테츠, 153-170쪽.